

행복도시 건설 현황 및 '12년 정책 방향



정경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시설사무관



1. 명품 행복도시 차질없이 추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개청과 함께한지 7년, 세계적인 명품도시 건설이라는 역사적인 사명과 함께 첫 삽을 뜬지 5년 만에 드디어 첫마을에 주민입주가 시작됐다. 참으로 가슴이 뜨거워진다. 그동안 수정안 논란 등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제야 결실을 맺는 것 같아 너무 뿌듯하다.

행복도시는 국가의 균형발전 선도라는 목표아래 2030년까지 인구50만의 세계적인 모범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총 22.4조원을 투자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특히, 행복도시는 환상형 도시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다. 도시중심부에 중앙공원을 배치하고 바깥으로 Ring형 대중교통중심도로를 따라서 중앙행정, 문화·국제, 도시행정, 대학·연구, 의료·복지, 첨단지식 등 6개 주요 도시기능지구를 배치하였으며, 각 자치단체의 동(洞)단위와 유사한 22개의 기초생활권을 배치하여 도시특성에 맞도록 계획하였다. 현재 8개 생활권에 대한 부지조성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행복도시는 행정이 중심이 되는도시이

다. 16개의 중앙행정기관(9부2처2청 포함)과 20개의 정부소속기관을 2014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이전할 예정이다. 올해는 6개 중앙행정기관과 6개의 소속기관을 합쳐 총 12개 기관이 입주할 예정으로 있으며, 특히, 1단계 1구역인 국무총리실은 내외부 마감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9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12. 9월 손님맞이 준비에 여념이 없다.

따라서, 앞으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입주하게 됨에 따라, 이들이 살 집과 각종 기반시설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하겠다. 이를 위해 첫마을에 6,520세대의 아파트 건설을 완료하여



정부청사 1단계

작년 12월 26일부터 입주를 시작했고, 119안전센터, 동사무소, 주민지원센터 등의 서비스를 시작했고, 수질복원센터, 폐기물연료화시설 등 환경기초시설과 전력·가스·통신 등 각종 기반시설을 완비하였다.

또한, 대전 유성연결도로를 개통하여 인접 대도시와의 접근성을 강화하였으며, 학교, 문화,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건립과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동구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 등도 완료하였다. 현재 54개 각종 주요기반시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예산규모로 볼 때, 전체 예산의 35.7%인 8조 3백억 원이 집행되었고, 보상비를 제외하면 전체 17.1%의 진도를 보이고 있다.

2. 최고 수준의 도시기반시설 구축

행복도시는 국내 대표적인 친환경 녹색도시로 건설된다. 도시중앙에는 중앙공원(134만㎡), 호수공원(32만㎡), 국립수목원(65만㎡) 등 3개의 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개발예정지의 52.4%가 공원·녹지로 조성되며, 이는 분당 19.4%, 일산 23.5%와 비교했을 때 국내 최대 규모이고, 일본 다마의 18.4%,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의 37.6% 등 최근 조성된 세계의 다른 신도시와 비교해도 매우 큰 규모다. 또한, 그린시티(Green City)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70%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계획이며, 특히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 15% 도입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

녹지율 뿐 아니라, 기반시설도 친환경적이다. 상·하수도 시설 같은 환경기초시설은 모두 지하화하였으며, 또한, 자동크린넷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지

하 수송관로를 통해 12개 집하장으로 모이게 계획하였고, 가연성 폐기물은 연료화(RDF)하여 열공급 재료로 활용하게 하는 등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된다. 특히, 초기 도시공급 시설인 수질복원센터와 폐기물 연료화시설, 서세종변전소, 지역난방시설, 자동크린넷 시설 등을 행복도시 서남부 지역(S2)에 모두 집적화 하여 효율을 증대하였다.



국립도서관

또한, 입주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인 학교시설의 경우 2030년까지 유치원 66개, 초등학교 41개, 중학교 21개, 고등학교 20개, 특수학교 2개 등 총 150개가 주민입주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건설된다. 첫마을에는 금년 3월에 유치원 2개와 초등학교 2개, 중·고등학교의 개교를 준비 중에 있으며, 시범생활권내에는 유치원 3개, 초·중·고교 각각 2개교를 포함한 9개교가 2013년에 문을 여는 등 공무원 이전시기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개교한다. 특히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학급당 20~25명으로 편성하고 U-school과 같은 선진국형 스마트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카이스트, 해외 글로벌 대학을 유치해 타 도시와 차별화된 교육환경을 갖추어 나갈 계획이다.



중앙호수공원



대중교통중심도로

행복도시는 국토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전국어디서나 2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한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이다. 인근 오송에 2개의 KTX노선, 4개의 고속도로, 3개의 국도가 인접해 있다. 정부의 광역교통개선계획에 따라 행복도시를 중심으로 13개 광역도로(총 109.5km)를 신규로 건설할 예정이다. 또한 행복도시는 자가용이용을 억제하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중심도로에 첨단 BRT (Bus Rapid Transit) 전용차로를 건설 중에 있으며, 23.9km중 서측 12.3km는 '12. 8월까지 개통 할 계획이다. 또한 녹색교통수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총 354km의 자전거 도로를 계획하고 있다.

이밖에도 행복도시는 도시설계 단계부터 도시경관·건축물 등에 대한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매우 스마트한 도시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버스승차대, 가로등, 벤치, 맨홀, 수목보호대, 종합안내사인 등 총 44종의 공공시설물을 통합 설계하여 쾌적한 거리,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눈살을 찌뿌리게 만들었던 복잡잡한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는 도시전체에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별구역을 지정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며, 권역별, 용도별, 색채가이드라인을 정해 도시 전체적인 경관의 질적 향상을 이뤄낼 계획이다.



U-city의 개념

아울러, 최첨단 IT기술을 도시전체에 적용하여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내 최초로 도시전역에 광대역 통합망의 초고속 자가통신망과 무선인터넷, 가족 안심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맞춤형 행정서비스, 방법, 방재, 기상정보 외에도 교육, 교통, 시설물 관리 등 총 47종의 첨단 U-서비스가 적용되어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가 있다.

특히,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한 '세종시' 명칭의 모티브는 세종대왕이다. 현존하는 언어 중 가장 과학적이며 실용적인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우수한 한국성과 창조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전통스타일의 랜드마크를 구성할 계획이다. 도시의 다리, 지명, 문화·공공시설 등 모든 명칭을 순우리말로 제정하셔서 한국문화 마을을 조성하여 최근 불고 있는 신 한류 문화의 초석을 다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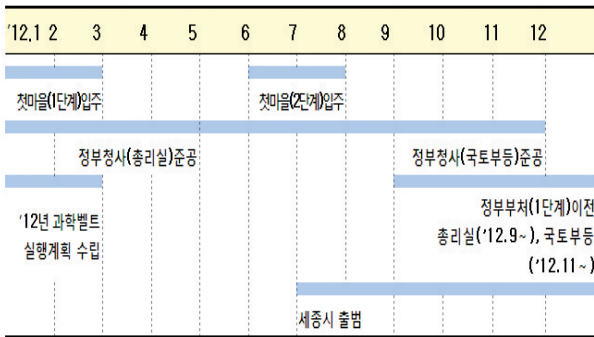
3. 올해는 정부청사 입주와 세종시 출범의 원년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행복도시 건설



'12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정책방향

올해는 특별법에 따라 새로운 미래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가 '12. 7. 1일 출범하게 되는 역사적인 해다. 세종시는 연기군과 공주, 청원군 일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관할구역은 서울시 면적의 3/4(465km²) 규모이다. 새로운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원활히 출범되어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를 위해 시청사와 교육청사를 '13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자치단체 출범과 동시에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을 '12.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앞으로 도로, 공원, 수질복원센터, 폐기물매립장 등 많은 공공시설이 완공되면 세종시로 이관될 예정으로 있어, 건설청과 세종시의 상호역할 분담 및 긴밀한 협조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또한 3단계로 '14년까지 행복도시로 이관할 36개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중 금년에 입주하게 될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12개 기관이 차질없이 이전되도록 청사건립 및 기반시설 완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특히, 총리공관과 국제회의·전시·홍보 등을 위한 행정지원센터 건립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이전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및 오피스텔, 타운하우스 등 다양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로, 서민복지 확대를 통한 공생발전을 구현할 계획이다. 최근 국제경기 침체에 따른 우리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행복도시 건설에 따른 건설부문 인력수요 증가 및 최근 충청지역 주택경기 활성화 붐이 예상됨에 따라 약 13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직업전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원주민의 소득창출을 지원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1차 행복아파트의 입주(500세대)를 완료하고 추가로 2차 행복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이다.

셋째, 도시정착을 위한 기반시설을 우선 구축할 계획이다. 도시내 도로의 각 지선과 간선을 연결하는 대중교통중심도로 2구간과 국도1호선 외곽순환도로를 '12.9월 개통할 예정이며, 또한 정부청사이전에 대비하여 오송역·정안IC 연결도로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계를 위해 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를 '14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또한, 행복도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열병합발전소를 건설 중에 있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복합커뮤니티센터 9개소와, 2개 광역복지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넷째, 품격 높은 미래형 도시공간을 창출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중앙호수공원 조

성하고 국립수목원의 설계도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하도록 신재생에너지 도입 및 친환경·고효율 LED조명 40% 도입을 추진하고, 여성·장애인·노약자 등 누구나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획득할 계획이다. 창조적인 문화예술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국립세종도서관, 대통령기록관, 아트센터 및 국립자연사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박물관 등 박물관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유수의 산·학·연 연구소 및 전문대학원을 유치하고, 과학벨트 거점지구로서 글로벌 정주환경 조성, 비즈니스 환경 구축, 연구기능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건설청 8,028억원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9,190억원 등 총 1조 7,218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행복도시를 계획하고 첫 삽을 뜬 이래, 지금까지가 준비단계였다면, 앞으로는 본격 도입단계라 볼 수 있다. 그동안 “ 과연 될까?” 라는 물음을 수도 없이 들어왔다. 그러나, 이제 “ 정말 되고 있다!” 다시는, 과거와 같이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익을 해치는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행복도시는 미래도시이다. 지금 우리가 건설하고 있는 이 도시가 후세에 길이 남을 희망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아울러,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다함께 열정과 지혜를 모아 줄 것을 기대해 본다.

· 정경희 e-mail : jkh1203@korea.kr